

KIA 윤영철 “여유로운 피칭 되찾아 위기 넘는다”



KIA 타이거즈 좌완 윤영철이 14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을 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윤영철이 ‘윤영철답게’ 2025시즌을 다시 시작한다.

초반 계속된 부진으로 숨을 골랐던 KIA 타이거즈 좌완 윤영철이 14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을 한다.

지난 4월 18일 두산전 이후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윤영철은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지난 2일 다시 1군에 등록된 윤영철은 볼펜에서 힘을 보탤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KIA 마운드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윤영철의 부진 속 선발 역할을 맡았던 황동하가 횡당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면서 허리뼈 골절 부상을 당했다.

황동하가 빠지면서 윤영철은 14일 선발로 나서 마운드 급한 불 끄기에 나선다.

지난 4월 26일 롯데와의 퓨처스경기가 마지막 실전이었던 만큼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윤영철은 편하게 마운드에 오르겠다는 계획이다. 윤영철의 감정으로 짚었던 윤영철다운 여유로움으로 반등의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영철은 “준비는 잘했는데 등판일이 오래돼서

황동후 부상으로 오늘 롯데전 선발 복귀

“나답게 100% 통제할 수 있는 것 할 것”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만 안 맞으면 다음에 다르게 하면 된다”며 “밸런스가 안 맞아서 퓨처스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썼다. 그리고 익스테이션이 길어져서 발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신경 쓰였다. 그걸 의식하니까 발 딛는 것도 흔들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발 딛는 것도 왔다갔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웠던 게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시범경기 때는 괜찮았던 만큼 조금만 수정하면 잘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생각’하고 연결된다.

윤영철은 “마운드에서 나답지 않게 걱정이 많았다. 안 되면 어떻게하더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편하게 하려고 한다.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하셨다”며 “단순하게 마운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경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복잡했던 머리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영철은 “첫 경기 때는 내가 무너진 것도 있었고 두 번째 경기부터는 등판팀도 길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과욕이었다”며 “잘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잘하고 싶다고 해서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의욕이 과했다. 몸은 안 따라 주는 데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번 등판 상황이 편한 것은 아니다. 투타의 동반 부진 속 KIA는 기대와는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볼펜이 흔들리면서 충격적인 패배가 쌓이고 있다. 황동하의 이탈 뒤 많은 시선을 받으면서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철은 “초반에는 다 우리를 강팀으로 봤었다. 그것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 급했던 것 같다. 야수도, 투수도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올라가야 한다. 그렇다고 매 경기 잘할 수 없고 144경기 다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최대한 이기게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한다”며 “기대되고 긴장도 된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릴 것 같기도 하다.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다 경기 일부다. 또 내 야구 인생에 일부니까 편하게 하겠다”고 시즌 세 번째 등판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위즈덤도 아프다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 말소

KIA 타이거즈의 부상자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올랐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사진)이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범호 감독은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앞서 “(11일)SSG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위즈덤이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했는데, 트레이닝 파트에서 며칠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내야수도 많지 않고 해서 1주일 정도 힘들지 않을까 판단해서 엔트리에서 뺐다”고 위즈덤의 말소 소식을 전했다. 위즈덤은 휴식을 취한 뒤 전력에 재가세할 예정이다.

KIA 입장에서는 매주 부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선발 황동하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게 됐다. 롯데-두산을 상대로 한 홈 6연전 시작날에는 외국인 타자가 이탈했다.

여기에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빠진 나성범의 복귀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나성범은 12일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3~4주 정도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범호 감독은 “3~4주 정도 있어야 기술 훈련 들어갈 수 있다. 이후에 다시 MRI 찍어보고 기술 훈련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심타선의 부상 늪에 빠진 타선, 볼펜에서는 ‘불발’이 고민이다.

KIA는 제구 난조도 고전하고 있는 최지민을 지난 12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이범호 감독은 “퓨처스로 내린다고 답은 아니

니까 1군에서 던지면서 제구를 잡을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구위 자체는 좋은 선수고, 스트라이크존에 형성되면 경쟁력 있는 선수다”며 “다른 것보다 심리적인 부분 같다. 구위 스피드 관측은 데 초구에 불이 되면 연달아 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퓨처스에서 던지면서 밸런스 찾으면 올라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최지민의 엔트리 말소에 대해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코리아컵 우승 ‘위대한 여정’

오늘 수원FC와 4라운드 16강 ... ‘화려한 복귀’ 가브리엘 공격 전면에



광주FC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수원 원정에 나선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라운드 16강 경기를 치른다.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광주는 지난해 구단 사상 첫 코리아컵 준결승 진출을 이뤘다. 새역사는 썼지만 결승이라는 무대를 밟지 못했던 만큼 광주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달린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여정을 펼쳤던 광주가 코리아컵 우승을 이루면 우승팀 자격으로 또 다른 아시아무대에 도전할 수도 있다.

광주는 앞선 코리아컵 3라운드 경주한수원과의 경기에서 가브리엘(사진), 박인혁의 골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이정호 감독의 로테이션이 관심사다. 시즌 초반 ACLE 일정을 병행했던 광주는 지난 11일 전북현대와의 홈경기 이후 3일 만에 수원 원정길에 오른다. 전북을 상대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숨 막히는 공방전을 벌였던 만큼 선수단의 체력 소모가 컸다.

체력이 걱정이지만 이정호 감독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가용 자원을 폭넓게 이용해 시즌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운영으로 광주는 어떤 조합을 내세우더라도 ‘정효율’을 구사하면서 광주 축구색을 보여주고 있다.

8강행 티켓을 위해 가브리엘이 수원FC전 전면에 선다.

가브리엘은 앞선 3라운드 경주한수원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부상 복귀를 알렸다.

전반 김한길의 크로스를 가슴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던 가브리엘은 후반전에는 박인혁에게 스루패스를 했고, 도움도 기록했다.

앞선 전북전에서 후반 31분 교체 투입돼 체력 안배도 하고 경기력도 끌어올린 만큼 가브리엘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8일에는 포항 원정에 나서야 하는 광주가 수원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우승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도... 토트넘도... “우승 한 톨다”

22일 맨유와 유로파리그 결승

“그렇지, 소니(Yes, Sonny)!” “움직여(Move), 소니!”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12일(현지시간) 한낮 영국 런던 북부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동료들과 코치진의 격려 속에 훈련에 나섰다.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4시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리는 토트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토트넘은 언론에 훈련 상황을 공개하는 미디어 오픈 데이 행사를 열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같은 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UEL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손흥민은 발 부상으로 7경기 연속 공식전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전날에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EPL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3분에 투입돼 복귀했다.

손흥민은 이날 브레넌 존슨, 미키 판더펜, 데스티니 우도기, 세르히오 아케로 등 동료들과 가볍게 몸을 풀며 호흡을 맞췄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어깨를 두드리며 대화하는 밝은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약 1시간 동안 훈련에 참여한 뒤 공격수 도미닉 솔라케와 하이파이브를 나눈 뒤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자리를 뒀다.

이미 전날 그라운드에서 뛰었고 경기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전력을 끌어올릴 시간은 더 남아 있다는 게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설명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체적인 부분에서 손흥민은 양호하다”며 “지금 상태가 괜찮고 (준비할 시간이) 8~9일은 더 있다. 우리는 그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금요일에 그(손흥민)를 몇 분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을 잘 소화하면 그는 팬층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은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손흥민은 프로 무대와 국가대표팀을 통틀어 한번도 성인 무대에서 우승한 적이 없는 터라 UEL 우승 트로피가 간절하다.

독일과 잉글랜드에서 도합 15시즌을 뛰면서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했다. 태극마크를 달고선 연령별 대회로 분류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게 손흥민의 유일한 우승 기록이다.

손흥민도 취재를 만나 “떠올라 모든 피스(조각)는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피스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트넘으로선 우승하면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무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도 손에 넣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